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12
2025.09.01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CBAM 최종 시행 앞두고 4분기 핵심 규칙 발표 예정
- EU ETS, 9월 말 의무 제출 앞두고 EUA 가격 전망 상향
- EU ETS2, 2027년 잉여 배출권 후 2034년 톤당 €180 전망
- (Special) MSR 이란?
- EU 2040 감축 목표 논의, 프랑스·독일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
- 자발적 탄소시장, 장기 계약과 고품질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
- DACCS·BECCS 지원 나선 영국, 장기 보조금 체계 도입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CBAM 최종 시행 앞두고 4분기 핵심 규칙 발표 예정

EU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앞서 세 가지 핵심 시행 규칙 (implementing acts)을 올해 4분기에 발표할 계획. 이에 3가지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call for feedback)을 개시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3가지 규칙 :

- **방법론**: 수입품의 배출량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
- **무상할당**: EU ETS의 무상할당을 CBAM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 **제3국 탄소가격**: 수입국(제3국)에서 이미 납부한 탄소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즉, 앞으로 기업이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CBAM 인증서 구매 수량을 줄여주는 무상할당 방식, 그리고 자국에서 이미 낸 탄소세나 크레딧을 EU가 인정할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될 예정

동 의견수렴은 9월 25일까지이며, EU의 CBAM은 2026년 1월 1일부로 최종 단계 (definitive phase)에 진입, 수입업자에게 재정적 의무가 부과될 예정



EU ETS, 9월 말 의무 제출 앞두고 EUA 가격 전망 상황

호주 4대 시중은행이자 국제 에너지·원자재 리서치 전문 은행 ANZ (호주뉴질랜드은행그룹)은 공급 긴축과 시장 펀더멘털의 견조함을 근거로, 12월물 EUA 선물이 향후 3개월간 70~80 유로 (약 11.3만~13만 원) 범위에서 거래되며 최대 80유로 (약 13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

기온이 하락함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가 배출량 축소로 이어져 EUA 수요가 줄어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으나, EU ETS 의무 준수를 위한 9월 말 배출권 제출 기한을 앞둔 막판 매입이 가격 지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힘.



EU ETS2, 2027년 잉여 배출권 후 2034년 톤당 €180 전망

EU ETS2는 2027년부터 건물 및 운송 연료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로, 무상할당 없이 100% 경매 방식으로 진행

노르웨이의 탄소·에너지 시장 분석기관 Veyt에 따르면, ETS2의 가격은 제도 초기에 배출권 경매 물량이 선(先)공급 (frontloading)됨에 따라 톤당 약 80유로 (약 13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고, 2027년에는 약 2.3억 개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해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 됨.

다만 2031년부터는 MSR (시장안정화제도)에 유입된 배출권이 무효화 됨에 따라 공급이 감소하고, 점차 가격이 상승해 2034년에는 톤당 180유로 (약 29만 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17~22% 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

현재 ETS2는 시장 유동성이 낮고, 일부 회원국의 반대 및 법적 소송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지만, 규정상 시행 연기 가능성은 낮음.

ETS2는 첫 10년 동안 70%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와 열펌프 보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 청정 기술 확산이 지연될 경우 탄소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



MSR(Market Stability Reserve)



MSR

(Market Stability Reserve, 시장안정화제도)

- 탄소배출권 시장의 공급과잉 또는 공급부족 문제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가격안정화 제도
- 목적:
 - 탄소시장의 공급-수요 균형 유지
 - EUA 가격의 급변 방지 → 감축 유인을 유지
 - 시장 신뢰도 제고
- 매년 5~6월 EU는 TNAC (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 유통 중인 총 배출권 수)를 발표
- 이 TNAC 수치를 기준으로 MSR이 작동



MSR 작동 원리

8억 3300만 개 ≤ TNAC ≤ 10억 9600만 개



MSR에서 배출권을
풀어서 경매에 공급



잉여의 24%를 경매에서 제외,
MSR에 보관

MSR에 쌓인 배출권이 4억 개 초과 시,
초과분은 매년 자동 폐기 (영구적)



EU 2040 감축 목표 논의, 프랑스·독일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

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핵심 변수로 부상

프랑스는 원자력 인정 및 산업 보호, 전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추가 지원책을 요구

독일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프랑스와 독일이 2040년 90% 감축 목표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짐.

덴마크 EU 의장국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민간 투자 확대, 산업 탈탄소화 및 에너지 시스템 현대화의 촉진 등을 포함한 타협안을 제시

동 타협안을 기반으로 9월 18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27개국 환경 장관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시도되며, 합의가 이뤄질 시 EU는 이를 토대로 2025~2035년 EU NDC 제안을 파리협정에 제출할 예정



자발적 탄소시장, 장기 계약과 고품질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참여 방식을 일회성 구매에서 벗어나 장기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추세

영국의 탄소금융 플랫폼 Abatable은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단순 상쇄 수단이 아닌 기후·지속가능성 전략의 핵심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SBTi*의 BVCM* 지침과 Oxford 상쇄 원칙*에 부합하는 고품질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함.

기업들은 내부 교육을 강화해 재무·법무 부서까지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개발자와 협력을 통해 자금조달, 검증일정 조정, 계약 조건 설계 등을 함께 하며 안정적 공급과 품질 확보를 추구

2024 파리 올림픽 사례처럼 조기 자금을 투입해 크레딧을 확보하는 모델도 확산 중임. 이와 함께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5년 상반기에 기록적인 크레딧 소각 (credit retirement)을 기록하며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는 중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 기업들이 과학적으로 기반된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가이드하는 국제 기구

*BVCM (Beyond Value Chain Mitigation, 가치사슬 외부 감축)

: 기업이 사업 활동이나 공급망 (Scope 1, 2, 3)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줄이는 것 외에, 자체 가치사슬 밖에서 추가로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

*옥스퍼드 상쇄 원칙 (Oxford Offsetting Principle)

: 기업들이 탄소상쇄를 단기 ‘배출 감축 보조 수단’에서 장기적으로 ‘탄소 제거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도록 제시한 국제 가이드라인



DACCS·BECCS 지원 나선 영국, 장기 보조금 체계 도입

영국 정부가 DACCS (직접공기포집 및 저장)와 BECCS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엔지니어링 기반의 탄소 제거 기술을 본격 확산하기 위해 온실가스 제거 (GGR)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

핵심은 15년 계약차액정산제도 (CfD, Contract for Difference)로, 시장가격이 낮으면 정부가 보전하고, 높으면 기업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구조. 신규 프로젝트에는 건설비의 절반까지 지원하고, CO₂ 운송·저장 비용도 보조함.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에도 가격 인센티브와 공정거래 원칙을 도입해 투명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2029년까지 UK ETS와 통합할 계획

GGR은 단순 감축 수단을 넘어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공급망 확대를 목표로 하며, 모든 크레딧은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표준협회)와 제정한 새로운 UK 표준을 준수해야 함.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